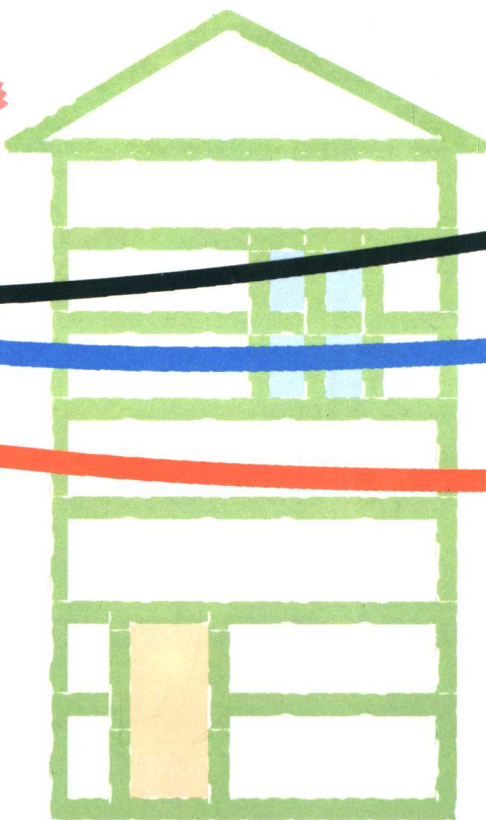


숲속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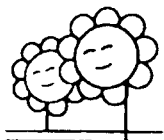
하이안

귀틀집

주필 김천사



숲속의 하얀 귀틀집



주필 김천사



주필 김천사

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丛林里的小白屋 / 金天使主编. —牡丹江: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06.4

ISBN 7-5389-1316-5

I. 丛... II. 金... III. 儿童文学—作品综合集—中国—
当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87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6)第036455号

书 名/ 丛林里的小白屋

主 编/ 金天使

责任编辑/ 池华林

责任校对/ 朴莲淑

封面设计/ 崔 岗

出版发行/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印 刷/ 吉林省图们市日升印刷厂

开 本/ 880mm×1230mm 1/32

印 张/ 7

字 数/ 250千字

版 次/ 2006年5月第1版

印 次/ 2006年5月第1次印刷

印 数/ 1—500册

书 号/ ISBN 7-5389-1316-5/I · 440(民文)

定 价/ 15.00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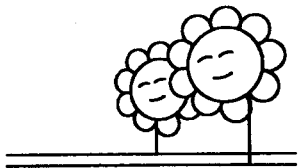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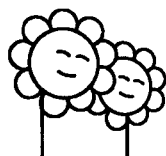
소설

- 1 변속자전거 / 박일호
- 78 숲속의 하얀 귀틀집 / 전춘식
- 107 그날 해는 짧았다 / 김미란
- 130 정란의 동화 / 김선파
- 187 인력거 / 최 준

동화

- 25 수달의 죽음 / 신정국
- 36 비루스사령부 특공원 / 서광익
- 94 동물비석 답사기 / 허 범
- 156 귀뚜라미 / 설병화
- 170 효자동이야기 / 정문준
- 177 실종된 얼룩이와 검둥이 / 김동철





동 시

버들개지(외 2수) / 김현순	32
백두산 · 2(외 2수) / 림금철	34
장국(외 2수) / 박영희	73
개암(외 3수) / 백진숙	88
친구(외 2수) / 김선희	143
다이어트 · 2(외 3수) / 김득만	184
하늘에는 구멍 하나 있다(외 3수) / 김일량	103
비암산 / 강성범 등	116
흰 구름(외 2수) / 림 철	148
가을산(외 3수) / 김철호	162
조각배(외 3수) / 김창규	164

수 필

마음이 출지 않은 겨울 / 허송절	29
《술가락파먹개》 / 박진화	67
맨드라미꽃 / 박홍률	70
붕어빵 / 최길록	75
선생님의 미소 / 박동하	181
천정에서 글자찾기유희 / 김승중	91
저 멀리에 아름다운 별이 있다 / 송련희	151
백날이 지나면 / 모동필	145
난로당번 / 림 파	167
향수냄새 / 김계옥	174

평론

- 206 지영호동시의 현대동시특성에
대한 약간의 고찰 / 립철
- 211 아동수필과 그 창작 / 김만석

옛이야기

- 198 허재골 / 한정춘

실화

- 120 남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어려서부터 / 김춘택





소설

변속자전거

박일호

철석이는 반짝반짝 빛이 나는 녹색변속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산골길로 내달렸다. 그는 분홍색변속자전거를 힘겹게 타는 향화를 점점 멀리 떨궈놓으며 땀뻘 내달렸다. 향화는 같이 가려고 련속 소리를 질렀다. 언덕길을 넘어서던 그의 자전거는 속력이 너무 빨라 허망 날기 시작했다. 속이 한층만해진 그가 어쩔 바를 몰라하는 순간 앞에 큰 바위가 나타났다.

《아, 아— 내 자전거—》

철석이가 크게 소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니 꿈이었다.

《후—》

구들고래가 꺼지게 한숨을 내쉬는 그는 베개수건으로 얼굴에 내뺀 땀을 닦았다.

철석이의 잠꼬대에 놀라 깨어난 철석이 어머니 김씨는 전등을 켜고 철석이를 바라보며 말하였다.

《너 그 자전걸래서 병나겠다. 원, 쯔쯔... 부모를 잘못만난 게 죄지...》

김씨는 손등으로 눈굽을 찍었다.

《원참, 어머니두 이젠 돈을 거의다 모았으니 이번 토요일에는 멋진 변속자전거를 사서 타게 될겁니다. 근심마세요.》

철석이는 시무룩이 웃으며 말하였다.

《그래그래 그랬으면 나도 한시름 놓겠다. 너 아버지도 알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김씨는 집을 떠나있는 남편을 생각하며 말하였다.

철석이 아버지는 외동아들을 대학공부까지 시키자면 농사만 지어서는 어렵도 없다면서 리자돈 만원을 쥐가지고 로씨야장사 길에 올랐다. 장사가 괜찮게 되어 일년만에 꾸어간 본전과 리자돈까지 거의다 물게 되었다.

철석이 아버지는 촌에서 십여리길인 현성중학교에 다니게 될 철석이한테 자전거 살 돈을 곧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하루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전해왔다.

철석이 아버지가 깡패들한테 걸려들어 빈털터리가 된후로 지금까지 집에다 전화할 돈마저 없어서 소식을 전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었다...

철석이의 변속자전거꿈은 그만 풍비박산이 되었다.

철석이는 이로 하여 결코 실망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서 기어코 변속자전거를 사고야말리라고 강심을 먹었다.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버는데 파악이 있는 일은 물고기를 잡아 파는 것이었다.

그런데 물고기를 파는 것이 문제였다. 현성시장에 가져다 팔려고 해도 시간이 문제였다. 장기적으로 팔수 있는 단골식당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자 문득 이웃에 살고있는 향화가 떠올랐다. 소학교때부터 지금까지 한반에 다니고있는 향화

네 이모가 현성에서 식당을 꾸리고있었던것이다.

철석이는 부끄러운대로 향화네 집에 찾아가서 향화한테 물어보았다. 향화는 알아보겠다고 선선히 대답하였다. 전화를 걸고 난 향화는 온얼굴에 웃음꽃을 활짝 피우며 이모가 물고기를 언제든지 가져오면 다 사겠다고 대답했다며 자기일처럼 기뻐하였다.

철석이는 강얼음이 풀리기 바쁘게 버들통발 새개를 시내물에 놓고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다. 이렇게 밤마다 잡은 물고기를 한번도 먹지 않고 향화 이모네 식당에 가져다 한근에 3원씩 팔았다.

하지만 유감스러운것은 물고기들이 시내물을 거슬러오르는 시일이 한 열흘밖에 되지 않는것이였다. 그래도 그 기간에 백여원을 벌게 되였다.

또 다른 돈벌이 구멍수가 없겠는가고 궁리하던 그한테 생각지 못한 새로운 돈벌이가 생기게 되였다.

어느날 생물시간이였다. 생물선생님은 다음학기 토끼해부실험을 하게 되는데 제때에 토끼를 사기가 힘들다면서 지금 새끼토끼를 사서 길러 가을에 학교에다 팔면 학교에 공헌도 하고 용돈도 벌수 있다고 하였다.

《옛, 제가 키워보겠습니다.》

《몇마리나 키울수 있겠습니까?》

생물선생님이 반가와하며 묻는 말이었다.

《네마리를 길러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철석이는 시장에 가서 새끼토끼를 한마리에 5원씩 주고 네마리를 샀다.

고맙게도 새끼토끼들은 아무런 탈도 없이 무럭무럭 잘 자라 인젠 네댓근은 될것 같았다. 한근에 10원씩이라 했으니 적어도 160원은 벌어놓은 셈이었다.

(후— 자전거 한대를 사기도 이렇게 힘겨운데 고증을 다닐 때는?... 쥐구멍에도 벌들 날이 있다구 아버지가 다시 돈을 벌수 있겠지...)

철석이의 기쁨은 잠시뿐이요 뒤따르는 근심으로 잠은 십만 팔천리로 달아나버렸다.

벽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켰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옷을 주어입었다.

《벌써 일어났니?》

잠이 오지 않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던 김씨가 물었다.

《예, 잠도 오지 않는데 채발이나 거뒀으겠어요. 오늘부터 날이 차지기 시작해서 물고기가 많이 들어있을거예요.》

철석이는 손전등과 다래끼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밤새 무서리가 내려 날씨는 제법 쌀렁하였다. 한기가 옷썩으로 스며들자 그는 저도 모르게 목을 움추리며 몸을 흠칫 떨었다. 순종 사냥개인 흰둥이가 꼬리를 저으며 철석이한테 다가와 자기도 같이 가자는듯 끁끁거렸다.

《그래 흰둥이야, 빨리 가자!》

흰둥이는 사립문을 열기 바쁘게 앞장서 달렸다. 철석이는 흰둥이의 뒤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1리가량 가니 남산밑으로 돌돌 흐르는 시내물이 나타났다. 채발안에는 그가 생각했던대로 들쭉개, 칼쭉개, 벼들치, 모래무치 등 물고기들이 뒤사발 잘되게 들어있었다. 그는 코노래를 흥얼거리며 물고기들을 다래끼에 주어담았다.

그가 흰둥이를 앞세우고 집으로 달려오며 보니 굴뚝에서 연기가 타래쳐오르고있었다.

《후— 어머니도 잠이 오지 않는 모양이구나.》

철석이는 가슴이 찌르르 저려남을 느꼈다.

부엌문을 여니 구수한 물고기국냄새가 코를 찔렀다. 오래간만에 맡는 냄새였다.

《어머니, 이 물고기를 향화네 집에 갖다주세요.》

철석이는 다래끼를 김씨한테 내밀었다.

《응, 그래야지. 그집 신세만 저야 되겠니?》

향화네 집에 갔다가 얼마간 지나서 돌아온 김씨는 집안에 들어서더니 손에 든 바구니를 철석이한테 보이며 말하였다.

«이것 봐라. 너한테 점심밀반찬을 해주라면서 절인 닭알을 이렇게 많이 주더구나. 예구, 이 신세를 언제면 다 갚겠니?»

«그 신세는 내 이제 다 갚아주겠으니 근심마세요.»

철석이는 제법 어른스럽게 대꾸하였다.

«그래그래. 너 같은 끝끝한 아들을 두고 내 무슨 근심을 하겠니?»

김씨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였다.

철석이는 구수한 물고기국에 입맛이 당기여 여느때보다 밥한공기를 더 먹었다.

그는 학교에 가기에는 아직 이른지라 영어교과서를 꺼내놓고 복습을 하였다.

5시가 좀 넘은것을 보고 그는 미리 준비해둔 책가방을 둘러메고 집을 나섰다.

동구밖을 벗어나 논두렁길에 들어섰다. 이때 두 논밭을 사이둔 논두렁길로 영구가 랑손에 강냉이이삭을 대여섯개씩 따서 쥐고 거들먹거리며 걸어오고있었다. 영구는 철석이를 피뚱 보고는 못본척 고개를 돌렸다.

«저쪽에는 저 사람네 밭이 없는데?...»

철석이가 영구를 의심하게 되는것은 결코 근거가 없는것이 아니였다. 건달농사를 짓고있는 영구는 일하기 싫어하고 노름과 술판에는 악들이인데다가 좀도적질을 자주 하여 동네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을대로 잃었다. 그러다보니 나이 40이 다되도록 장가도 못한 로총각이였다.

철석이는 채밭이 있는 곳까지 가서 강건너 향화네 밭쪽을 바라보았다. 한 50미터 떨어진 산비탈에 있는 콩밭에 웬 소가 들어가 콩잎을 걸탐스럽게 뜯어먹고있었다.

«아니, 저 놈 소가 저절로 뛰여든건가?»

철석이는 지체없이 냇다 뛰여가서 소한테로 다가갔다. 여원 황소는 힐끔힐끔 눈치를 보면서 맛있는 콩잎을 한입이라도 더 먹느라고 긴혀로 련속 콩잎을 뜯어먹어댔다. 고삐에 맨 장바를 길게 드리운채 있는 소는 분명히 영구네 황소였다.

《참, 사람이 왜 이렇게 럼치었는가?》

철석이는 재빨리 장바를 거두어준후 황소를 끌고 산비탈로 올라갔다. 근처의 풀들은 이미 소들이 거의다 뜯어먹어버려 얼마 없었다. 그렇다고 좀 먼곳까지 끌고갈 시간도 없었다.

《너도 주인을 잘못 만나 고생이구나...》

철석이는 풀이 좀 있는 곳의 이깔나무에 장바를 매며 측은한 눈길로 여윈 황소를 바라보았다.

채발농은 곳으로 다시 온 철석이는 서둘러 채발을 들어냈다. 그사이에 물고기가 또 뒤사발 잘되게 들어있었다. 향화네 집까지 인심을 쓰고도 한 30원을 벌수 있게 되어 그는 웃음주머니가 흔들거렸다. 괜찮은 변속자전거를 사는것은 때늦은 당상인셈이었다.

먼밭치에서 동구밖 큰길을 바라보니 생각밖으로 눈에 익은 분홍색변속자전거와 그옆에 노란 운동복을 입은 향화가 한떨기의 개나리꽃마냥 서서 그한테 눈길을 보내고있었다.

(저 애는 왜 이리 일찍 나왔을까? 혹시... 형, 오르지 못할 나무는 바라도 보지 말라고...)

그는 저도 모르게 위축감을 느꼈다.

향화는 철석이의 다부지게 생긴 체구, 부리부리한 웅숭깊은 눈을 바라보며 아침에 어머니가 하던 말이 귀전에 울려왔다.

《철석이는 돌위에 올려놔도 얼마든지 살아갈 애야. 시간만 있으면 엄마를 도와 농사일을 거들어주지, 금년에는 자기절로 자전거 살 돈도 다 마련했다지, 그러면서도 공부까지 잘하는데 너는 뭐가 모자라서 자기 공부만 한다는게 반에서 중축에도 못드냐?...》

(도대체 저 애는 어떻게 생겨먹어서 저렇게 열심히 땀수가 있을가?)

향화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철석이가 오늘따라 한결 돋보이였다.

《야, 이른아침부터 선볼 맞은 곰처럼 어디로 그렇게 급하게 뛰어다니?》

향화는 화사하게 웃으며 말을 건네었다.

《으응, 내가 이렇게 뛰어다니지 않으면 어떻게 너네 발에 손을 대는 도적을 발견할수가 있겠니?》

《그게 어떤 놈이야?》

향화는 워낙 큰눈을 새똥그랗게 뜨며 되물었다.

《영구말구 또 누구겠니?》

철석이는 방금 본 사실을 그대로 말해주었다.

《그 좀도적 같은게 내 우리 아버지한테 일러주고 올게. 너 먼저 떠나라.》

향화는 자전거에 쥘쥘 올라앉아 집으로 되돌아갔다. 철석이도 달리기 시작했다.

(영구가 자기 일을 내가 고발한줄 알고 보복하려 들지나 않을까?)

어쩐지 심보가 뻘뻘어진 영구가 시름이 놓이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향화가 뒤따라 왔다.

《야, 아직 시간도 이른데 좀 걸어가자. 내 할 말이 있다.》

향화는 썩썩 가쁜숨을 몰아쉬며 철석이 옆에 와 자전거에서 내렸다.

《뭐라구?! 무슨 말을?...》

《니 덕분에 오늘아침 물고기국을 맛나게 잘 먹었다.》

《뭐?!... 덕이야 내가 너한테 더 봤다.》

(헉, 공연히...)

철석이는 멍청한감이 들었다.

《그리구 너때문에 욕도 귀 아프게 들었다.》

《그건 무슨 아닌밤중에 흥두께 내밀듯 웬 소리야?》

철석이는 두눈이 휘둥그래지며 물었다.

《너는 공부를 잘하는데 나는 못하니깐! 당연하지 않니? 호호호...》

《허참, 난 또...》

《야, 그나저나 너한테는 공부를 잘할수 있는 비결이라도 있는거 아니니?》

향화는 정색해서 물었다.

《뭘, 비결? 비결이야 한두가지가 아니지 음...》

철석이는 좋은 비결이라도 있는 것처럼 건가래를 떼었다.

《그 비결을 좀 알려줄수 없니?》

호기심이 바짝 동한 향화는 철석이를 쳐다보며 사정하였다.

《음, 비결 한가지는 물고기를 많이 먹는거다.》

《피— 그럼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물고기를 많이 먹겠구나. 웃기지 말라. 흥.》

향화는 철석이가 자기를 놀리는줄로 알고 코웃음을 쳤다.

《진짜야, 물고기에는 지력상수를 높여주는 원소함량이 많이 들어있기에 경제가 발달한 일본사람들은 물고기를 즐겨먹는단다. 그리구 중국의 유명한 바둑선수들은 물고기대가리를 제일 즐겨먹는다는 보도기사를 본적도 있다.》

《너는 독서를 즐겨하더니 아는것도 많구나. 그럼 나두 이제부터 네가 잡은 물고기를 많이 사먹어야 되겠다.》

《이웃사이에 사먹다니? 인젠 자전거를 살수 있게 되었으니 너한테 얼마든지 잡아줄수 있다.》

철석이는 자기도 향화를 능히 도와줄수 있는 일이 생긴것으로 하여 은근히 기뻐하였다.

《너네 살림에 보탬은 못줄지언정 공것이야 어떻게 먹겠니? 그건 그렇다 하구 또 어떤 비결이 있니?》

향화는 그다음 비결을 알려고 급급히 물었다.

《음— 또 다른 한가지 비결은 운동을 많이 하는거야. 생명은 운동중에 있다는걸 너도 알지 않니?》

《호— 그건 어려운 일이구나. 오전오후로 십리길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것만 해도 고단해서 꿈쩍 못하겠는데 어떻게 너처럼 달려다닐수 있겠니?》

고단한것을 핑계로 체육시간에도 제대로 참가하지 않는 향화로서는 신심이 있을리 만무했다.

《나두 처음에는 수월치 않았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원망하기까지 하였었는데 담임선생님이 나한테 달리기를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신체단련을 한다고 생각하라고 하셨어. 그랬더니 점점 힘든줄 모르게 되었다. 금년교내륙상경기에서 5천메터 달리기에서 현내기록을 돌파해볼 예산이다.》

《넌 꼭 해낼수 있을거야. 그런데 난 어찌지? 호—》

《넌 왜 별일 아닌걸 가지고 그리 상심하니? 내 생각에는 공부를 잘하는데는 별다른 비결이 없다고 본다. <나도 하면 된다> 는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나 다 잘할수 있는거야.》

철석이는 향화가 자기를 믿고 도움을 청하는것이 기뻐고 자기가 얼마간이라도 조언을 해줄수 있는것으로 하여 더 기뻐다.

《고맙다. 오늘 많이 배웠어. 나 먼저 가겠다.》

향화는 자전거를 타고 앞섰다.

(호— 내가 머리가 둔한 관계인가?)

향화도 소학교때만 하여도 계속 3호학생이었다.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온후 웬 영문인지 학습성적이 락하산을 타기 시작하였던것이다.



(아니, 계속 이대로 나간다면...)

형클어졌던 실마리를 똑바로 잡게 된 향화는 천근짐을 부려 놓은듯이 가슴이 후련해났다.

향화 이모네 식당에 이른 철석이는 팔소매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쓱쓱 문지르며 출입문으로 들어섰다.

《안녕하십니까?》

철석이는 주방에서 나오는 향화 이모를 보고 머리를 굽적하며 인사를 하였다.

《오— 철석이 왔구나. 그래 오늘은 얼마나 잤어왔니?》

향화 이모는 환하게 웃으며 철석이가 땀가방을 벗는것을 거들어주었다.

《예, 한 열근 될겁니다.》

《거 잘되었구나. 날씨가 쌀랑해져서 물고기국을 찾는 손님이 많아졌다. 그래 이젠 자전거 살 돈을 다 모았겠구나.》

《예. 향화 이모덕이 많습니다.》

《내 덕을 보다니 네가 이렇게 가져오는 덕에 내사 시장에도 가지 않고 장사를 잘해먹는다. 요즘 애들이 다 너만큼만 철이 들었으면 무슨 근심을 하겠니?》

향화 이모는 물고기가 든 비닐박막주머니를 들고 주방에 가져다두고는 인차 되돌아나와 돈 35원을 철석이의 손에 쥐여주며 말하였다.

《더 추워지기전에 자전거를 빨리 사거라.》

《저 돈이 더 많지 않습니까?》

돈을 세여본 철석이가 물었다.

《더 준거 없으니 어서 학교에 가거라. 》

향화 이모는 손을 저으며 말하였다.

아침보도시간, 담임선생님은 보름후에 진행될 교내륙상경기에 남녀 만메터 자전거경기가 첨가된다는 새로운 소식을 공포하였다. 이어서 이에 적합한 선수를 선출하라고 하였다. 남학생으로는 제일 먼저 철석이의 이름이 올라왔다. 그런데 한 학생이 철석이는 자전거도 없는데 어떻게 훈련을 하는가 하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철석이는 자기 일인지라 말하기가 난처하여 병어리 랭가슴 앓듯하였다.

이때 향화가 벌떡 일어나 그 학생을 보며 철석이는 이번 토요일에 자전거를 사게 된다고 말하였다.

철석이는 순리롭게 선수로 뽑히게 되었다. 그는 자기 마음을 리해해주는 향화가 고맙기 그지없었다.

녀학생선수로 향화도 뽑히었다. 향화는 철석이와 같이 자전거경기선수가 된것이 못내 기분이 좋았다. 몇몇 여자애들이 귀속말로 자기와 철석이를 두고 수군대는 눈치를 쳤지만 아예 모르는척하였다.

(콧 질투를 해보라지.)

학교대문을 나선 철석이는 다른 때보다 더빨리 달려갔다.

가을철을 잡아드니 하루가 다르게 해가 빨리 지기에 토끼풀을 뜯기가 어려웠다.

그는 한 5리가량 가서 미리 봐둔 묵밭에서 생생한 세투리를 부지런히 뜯었다. 반시간이 걸려서 반주머니가 좀 넘게 뜯자 그는 허리를 펴고 일어났다.

꼴안의 짧은 해는 어느덧 서산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다른 때 같으면 먼저 채밭을 놓은 곳으로 가서 들어냈던 채밭을 다시 놓고 집으로 가겠으나 이날만은 토끼풀을 빨리 먹이려고 먼저 집으로 갔다.

사립문을 열고 들어서니 제일 먼저 반겨주는것이 흰둥이였다. 흰둥이는 텃숙한 꼬리를 확확 내저으며 다가와 꿈꿈거리며 손등을 핥아주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응, 오늘은 일찍 왔구나.》

집안에서 들려오는 김씨의 목소리였다.

철석이는 토끼우리로 다가갔다. 토끼들은 어둠속에서도 창살에 매달려 바둥거리며 먹이를 기다리고있었다.

《이제 죽을 날도 모르는 미물들아... 배불리 먹고 죽은 귀